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 가족실태와 지원방안

임지연 선임연구위원
한지형 전문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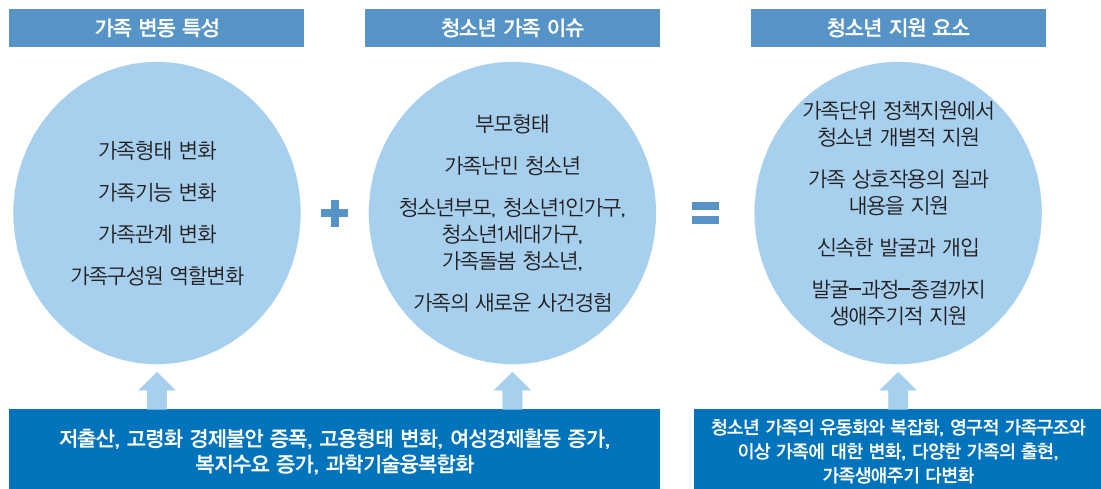
요약¹⁾

- 본 연구는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을 표준가족(정상가족)으로의 회복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가족의 변화와 다양성 포용에서 출발을 하고 있음.
- 청소년 가족의 변화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급변하는 가족과 사회 속에서 청소년이 보다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을 제안함.
- 분석결과,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정책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둘째, 현재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가족형태를 경험하고 있음. 셋째, 청소년들은 가족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 무기력하거나 외부와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음. 넷째, 가족지지 기반(정서+의식주)이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가족환경의 다양한 사건 및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음.
- 향후 가족 정책은 가족 단위 정책에서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의미와 요구에 맞는 지원이 필요함. 다양한 가족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과 생애과정의 비전형적 형태를 배제하지 않는 정책수단이 요구됨.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2년 연구과제인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을 발췌·요약한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가족과 청소년지원의 핵심은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소통이 가능한 접근방식과 지원방식으로 다가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임.
- ▶ 그동안 가족을 둘러싸고 다양한 법과 제도, 서비스들이 만들어졌지만, 그간 실행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실행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근거를 제공하여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함.
- ▶ 특히, 본 연구는 급변하는 가족과 사회에서 청소년이 보다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 지원 방식 재편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청소년 입장에서 가족환경 다변화의 의미를 연구들과 쟁점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청소년 입장에서 가족환경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청소년지원방식 재편을 위한 중단기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1] 청소년 가족의 변화 특성 파악을 위한 개념적 분석틀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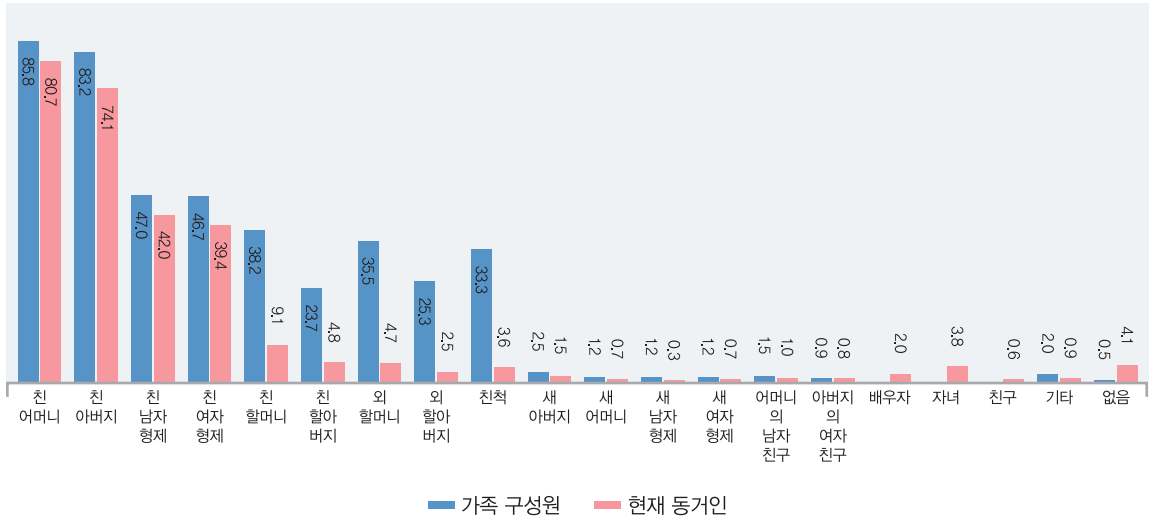
- ▶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담조사, 자문회의, 정책세미나 및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음.
- ▶ 설문조사는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만9-24세(초·중·고·대 연령) 학교 안팎의 청소년 총 2,04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술통계, CHI 차이검증, 요인분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조사대상 기관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학 및 전문대학 상담센터, 청소년부모단체임.

- ▶ 면담조사는 2022년 7월 28일 부터 8월 22일까지 초등학생(초등방과후아카데미) 7명, 중학생(중등방과후아카데미) 5명, 고등학생(청소년상담복지센터) 3명, 고등연령(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5명, 18-24세 대학생(전문대/4년제) 5명, 16-24세 청소년부모(청소년부모지원단체) 3명, 면담 대상자는 총 28명으로, ZOOM을 활용한 1:1 온라인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5개 면담내용을 영역별로 가족지지 유무, 생애주기별, 성별로 분석하였으며, 반복적-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3. 연구결과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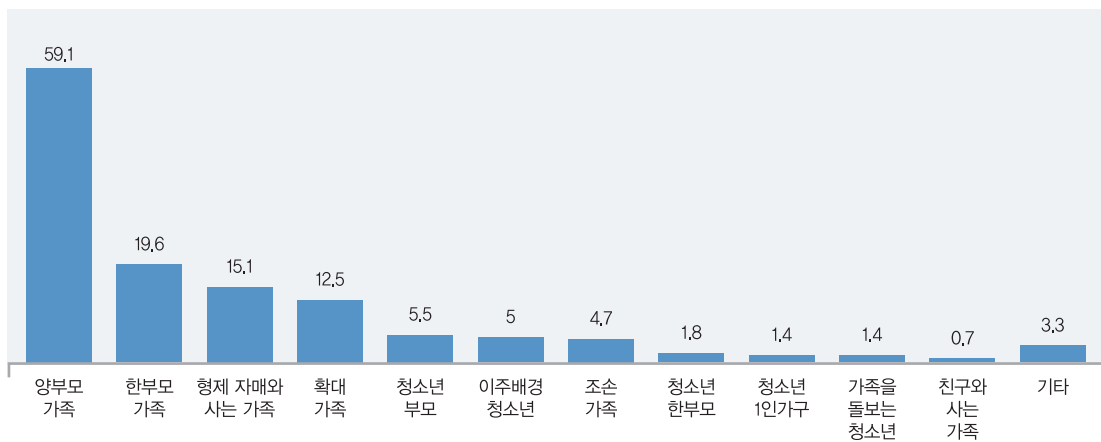
- ▶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청소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응답에서 친부모, 친·외조부모, 친형제·자매, 새부모, 새형제·자매, 어머니의 남자친구, 아버지의 여자친구, 친척, 새할머니 등 다양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최근 청소년 가족의 구조와 부모 형태는 더욱 이질적이고 유동적이었으며, 이러한 변화로 미혼, 재혼, 한부모, 이혼, 동거, 동성 양육, 조부모와 동거 등의 증가가 두드러짐.
 - ‘가족구성원 및 현재동거인에 대한 응답’ : 친어머니(85.8%), 친아버지(83.2%), 친남자형제(47.0%), 친여자형제 (46.7%), 친할머니(38.2%), 외할머니(35.5%), 친척(33.3%), 외할아버지(25.3%), 친할아버지(23.7%), 새아버지(2.5%), 어머니의 남자친구(1.5%), 새여자형제(1.2%), 새남자형제(1.2%), 새어머니(1.2%), 아버지의 여자친구(0.9%), 기타(배우자, 자녀, 시댁, 새할머니 등)(2%) 순으로 나타남.



[그림2] 가족구성원 및 현재동거인(N=2,042,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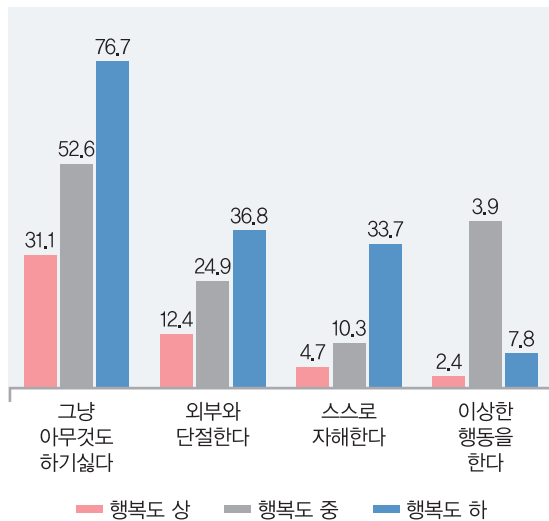
- ▶ 현재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가족형태를 경험하고 있음. 부모와 자녀가구로 고정된 가족형태가 아닌, 한 명의 청소년이 여러 형태의 가족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음.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가족 형태로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와 사는 가족뿐 아니라 이주배경 청소년,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청소년 1인 가구,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친구와 사는 가족 등 다양하게 나타남.

- ‘청소년기 과거 또는 현재의 가족형태’ : 양부모가정(59.1%), 한부모가정(19.6%), 형제자매와 사는 가족(15.1%), 확대가족(12.5%), 청소년 부모(5.5%), 이주배경 청소년(5.0%), 조손가족(4.7%), 청소년 한부모(1.8%), 청소년 1인가구(1.4%),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1.4%), 친구와 사는 가족(0.7%), 기타(기숙사, 시댁식구, 시설 등)(3.3%)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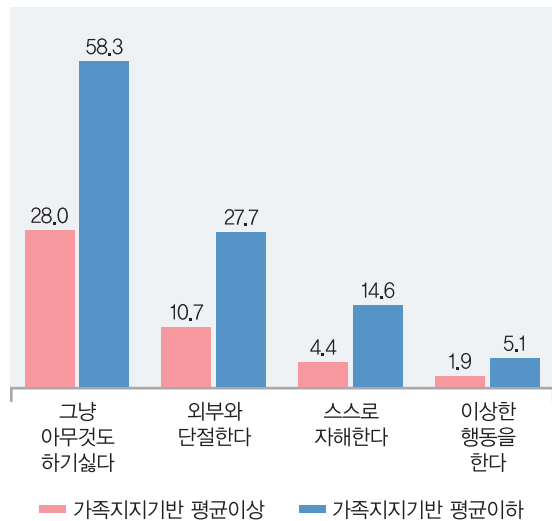


[그림3] 청소년기 과거 또는 현재의 가족형태(N=2,042, 다중응답)

- ▶ ‘가족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 청소년들의 주요 해결방법’으로는 ‘친구에게 말하거나(45.7%)’,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42.7%)’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많은 청소년들은 가족문제에 관하여 대처를 하지 못해 무기력하거나 외부와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음.
- ▶ 가족문제와 관련된 어려움으로 심리·정서적 상처, 불안, 외로움, 집안일, 불화, 건강, 무기력증, 주변의 편견과 낙인을 경험함.
 - 가족문제 대처방안으로 무기력증, 단절, 자해, 이상한 행동 유형 관련 응답 결과, 행복도별 차이가 가족지지(정서+의식주) 기반별, 경제수준별, 성별, 연령 학교급별, 학업수준별 차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남. 즉, 행복도가 낮을수록 무기력증과 외부단절, 자해, 이상한 행동을 가족환경 변화로 고민할 때 대처방안으로 선택한 비율이 높음.
 - ‘가족지지 기반’이 평균이상과 평균이하일 경우 대처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28.0% vs. 58.3%)’, ‘외부와 단절한다(10.7% vs. 27.7%)’, ‘스스로 자해한다(4.4% vs. 14.6%)’, ‘이상한 행동을 한다(1.9 vs. 5.1%)’로, 약 2-3배 이상의 큰 차이가 나타남.
 - ‘행복도가 ‘상’과 ‘하’ 일 때, 대처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싫다(31.1% vs. 76.6%)’, ‘외부와 단절한다(12.4% vs. 36.8%)’, ‘스스로 자해한다(4.7% vs. 33.7%)’, ‘이상한 행동을 한다(2.4 vs. 7.8%)’로, 약 3-7배 이상의 큰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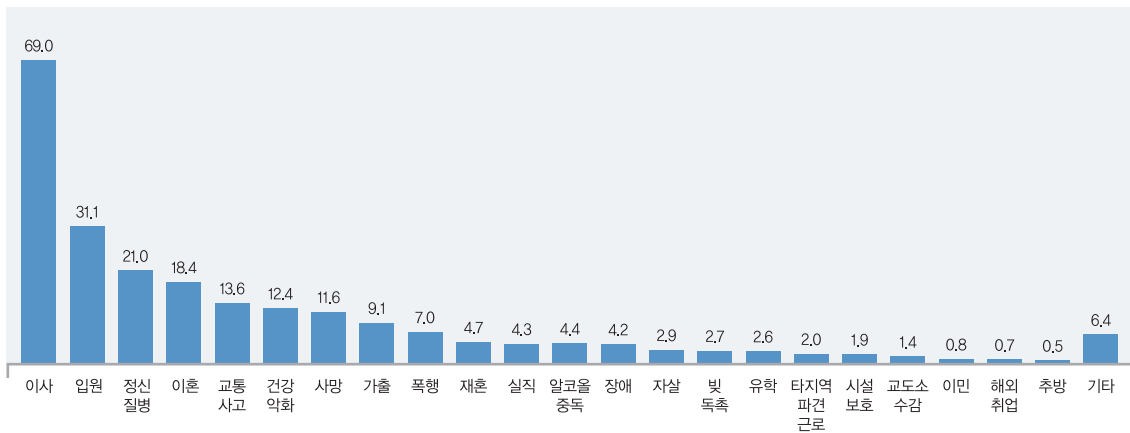
[그림4] 행복도에 따른 가족문제로 고민될 때 대처방법(다중응답)



[그림5] 가족지지(정서+의식주)에 따른 가족문제로 고민될 때 대처방법(다중응답)

- ▶ ‘청소년기 가족환경 변화의 사건과 경험’을 살펴보면, 가족지지 기반이 낮을수록 이사(69.0%), 입원(31.1%), 정신질환(21.0%), 이혼(18.4%), 교통사고(13.6%), 건강악화(12.4%), 사망(11.6%), 가출(9.1%), 폭행(7.0%), 재혼(4.7%), 알코올중독(4.4%), 실직(4.3%), 장애(4.2%), 자살(2.9%), 빚독촉(2.7%), 유학(2.6%), 타지역파견근로(2.0%), 시설보호(1.9%), 교도소수감(1.4%), 이민(0.8%), 해외취업(0.7%), 추방(0.5%), 기타(부부싸움, 자살기도, 사기 등)(6.4%) 순으로 나타남.

- 또한 ‘가족지지 기반(정서+의식주)이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가족환경의 다양한 사건 및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사와 입원 등 일상적 생활 사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정신질환, 이혼, 가출, 폭행, 재혼, 알코올중독, 자살, 빚독촉 등에서는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남.
- ‘청소년지원기관 인지도와 이용경험’에 대한 응답결과, 이용경험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과 인지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그림6] 청소년기의 가족환경 변화의 사건과 경험(다중응답)

- 현대사회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소년의 가족과 가정이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특성이 있으며, 가족형태가 과거의 영구적 가족구조와 이상적 가족구조로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가족형태의 청소년이든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예컨대, 가족난민(아바다 마시히로, 2019)과 같이 새로운 가족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됨.
- 청소년을 과거의 가족구조 속에서 바라보고 정책적 지원을 해왔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고, 가족구조 형태와 청소년의 상황이 유동적 관계에 있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개별적 지원이 필요함.
- 다양한 가족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이행기 보장을 위해 가족과 생애과정의 비전형적 형태를 배제하지 않는 정책수단이 요구됨.

2) 정책방안

▶ 영역 I. 가족단위 정책지원에서 청소년 개별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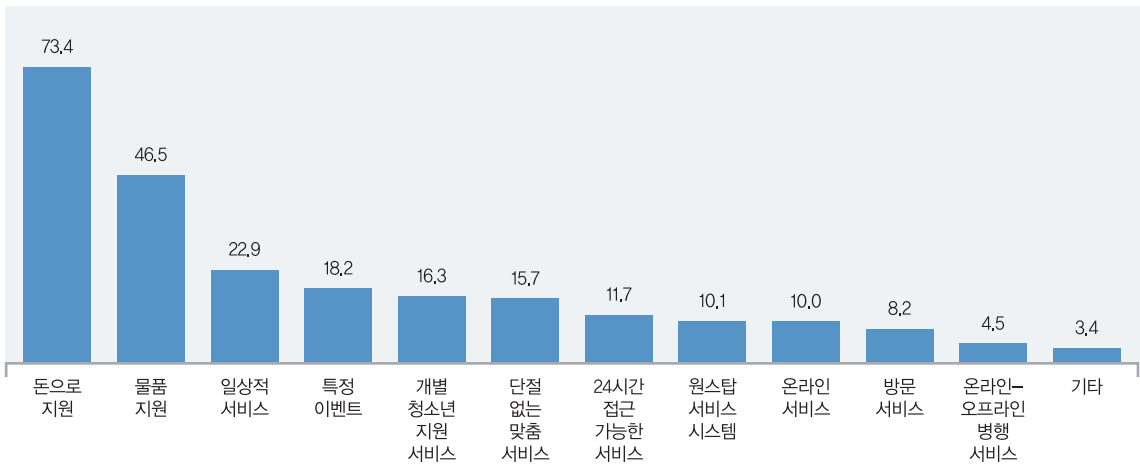
- (정책과제1) 청소년들의 서비스 신청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편
 - 청소년 개별적 지원은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권리와 요구에 기반한 청소년 개인중심의 요구 지원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면담조사 결과, 가족환경 변화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스스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조차 하지 못했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의 경험, 그리고 신청을 한다고 해도 방법에 있어서의 복잡성과 어려움, 도움의 피드백 결과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사실 (가족)상담을 신청한다고 해도 어디서 신청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뒤죽박죽....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조차 못 했으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던 거 같아요.”
(전문대학 여성 최OO)

“너무 복잡해서 저희는 오히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신청 방법이. OO에 전화를 해봐도 자기네들도 모르겠다는 식이고...”
(청소년부모 여성 김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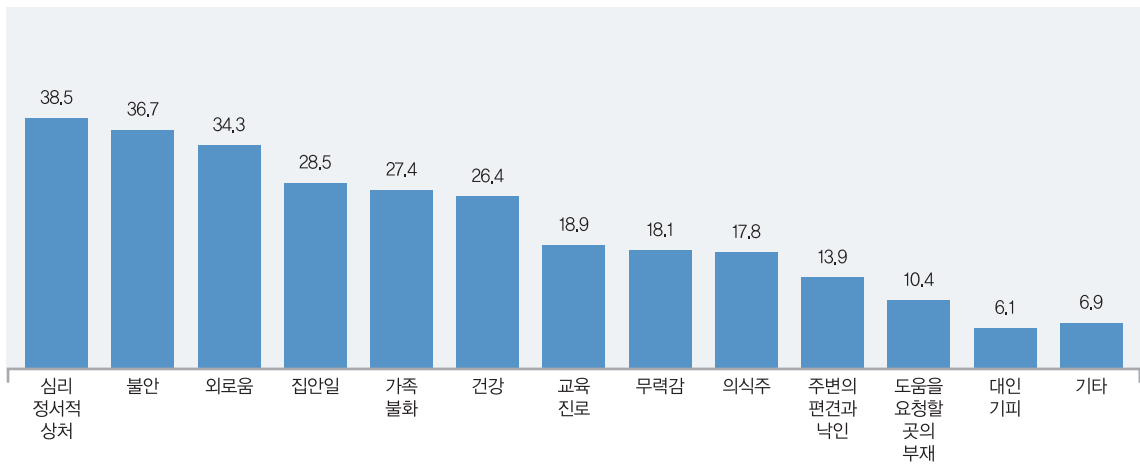
“기초수급이라는 걸 알았으면 기초수급 신청을 빨리 해서 빨리 선정이 돼서 애기들 초음파나 이런 걸 많이 봤을 텐데... 안타까운 거 같아요. 그러지 못했던 게.”
(청소년부모 여성 김O)

- 설문조사 결과, ‘지역사회로부터 희망하는 서비스지원’으로는 현금지원, 물품지원, 일상적서비스 등으로 나타났고, 가족지지기반이 낮을수록(12.2% VS. 20.7%), 연령이 높을수록(초등 10.5% VS. 청소년부모22.5%), 경제형편이 어려울수록(12.6% VS. 24.9%), 학업수준이 낮고(13.8% VS. 21.8%) 행복도가 낮을수록(12.9% VS. 29.5%) ‘가족단위가 아닌 개별 청소년 지원 서비스’ 방식을 2배 정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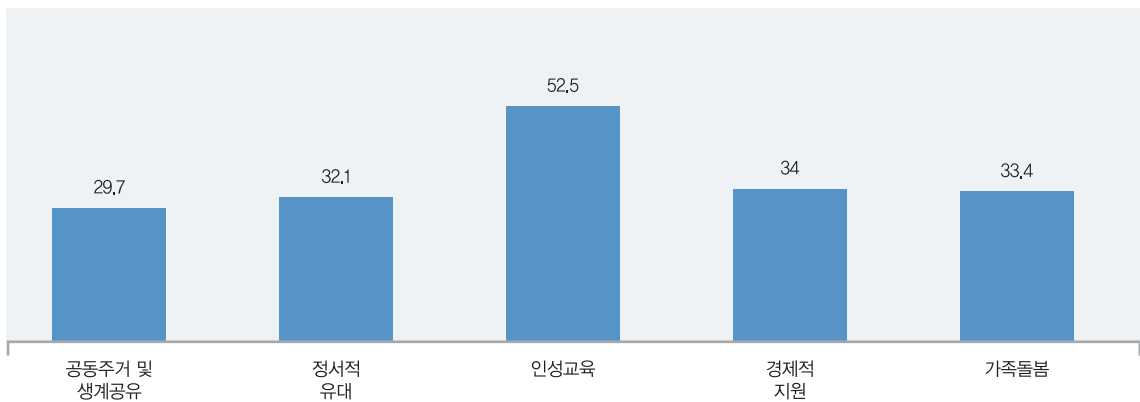


[그림기] 지역사회로부터 받고 싶은 지원

- (정책과제2) 가족환경 변화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로 지원내용 재편
 - 면담조사 결과,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과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족상담, 가족여행, 가족프로그램 등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가족문제로 고민 시 대처 방안으로 무기력증, 단절, 자해, 이상한 행동에 대한 조사결과, 행복도별 차이가 가족지지(정서+의식주) 기반별, 경제수준별, 성별, 연령 학교급별, 학업수준별 차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행복도가 낮을수록 무기력증과 외부단절, 자해, 이상 행동을 가족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원하는 가족기능으로는 경제적지원, 가족돌봄, 정서적유대, 공동주거 및 생계공유 보다도 인성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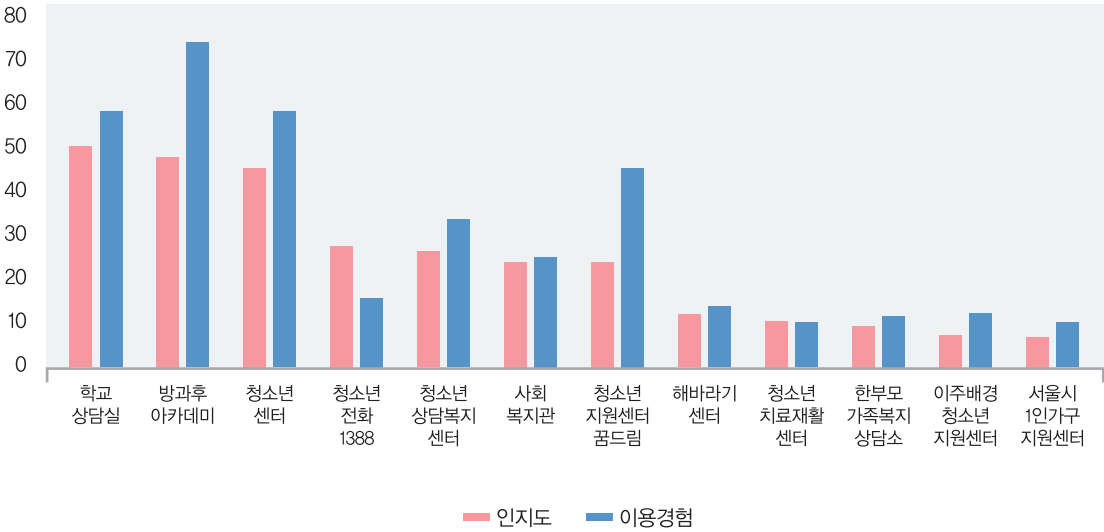
[그림8] 가족문제로 인한 어려움



[그림9] 가족기능(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 영역Ⅱ. 가족환경 변화 경험 및 초기대처 지원

- (정책과제3)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현장연결을 주도하는 중추지원조직으로 재편
 -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기의 가족환경 변화의 사건과 경험을 살펴보면, 가족지지 기반이 낮을수록 정신질환(21.0%), 이혼(18.4%), 교통사고(13.6%), 건강악화(12.4%), 가출(9.1%), 가출(9.1%), 폭행(7.0%), 재혼(4.7%), 실직(4.3%), 알코올중독(4.4%), 장애(4.2%), 자살(2.9%), 빗독촉(2.7%), 유학(2.6%), 타지역과권근로(2.0%), 시설보호(1.9%), 교도소수감(1.4%) 등이 높게 나타남.
 - 또한, 가족지지 기반(정서+의식주)이 낮은 집단에게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가족환경의 다양한 사건 및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사와 입원 등 일상적 생활 사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던 반면, 정신질환, 이혼, 가출, 폭행, 재혼, 알코올중독, 자살, 빗독촉 등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임.
- (정책과제4) 초기대처를 위한 기관담당자의 직무 재편
 - 면담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가족환경 변화가 발생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 전반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 환경으로 어려울 때 초기대처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지지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음.
 - 설문조사 응답 결과에서는 가족문제에 대한 어려움으로 심리 정서적 상처, 불안, 외로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문제로 고민 시 대처방법으로는 무력감, 단절, 자해, 이상한 행동 등 심각한 대처방법이 적지 않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청소년서비스기관 인지도와 이용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경험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특이하게도 잘 알지 못하지만 활용은 하고 있다'는 뜻으로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 기관들이 정보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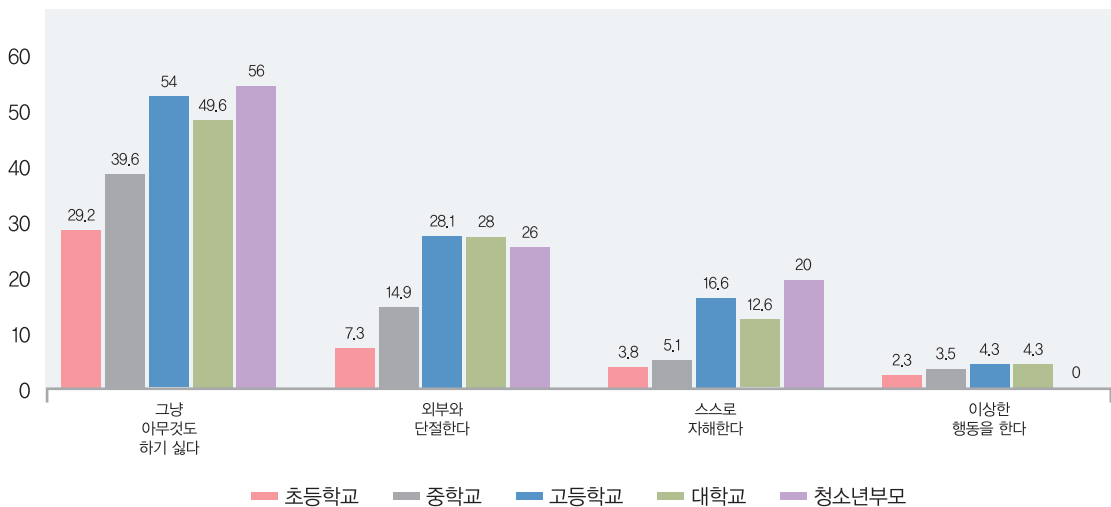


[그림10] 청소년 서비스 기관 인지도 및 이용 경험(%)

▶ 영역Ⅲ. 발굴-과정-종결까지 생애주기적 특성에 따른 지원

• (정책과제5) 청소년기 연령에 따른 특성 서비스로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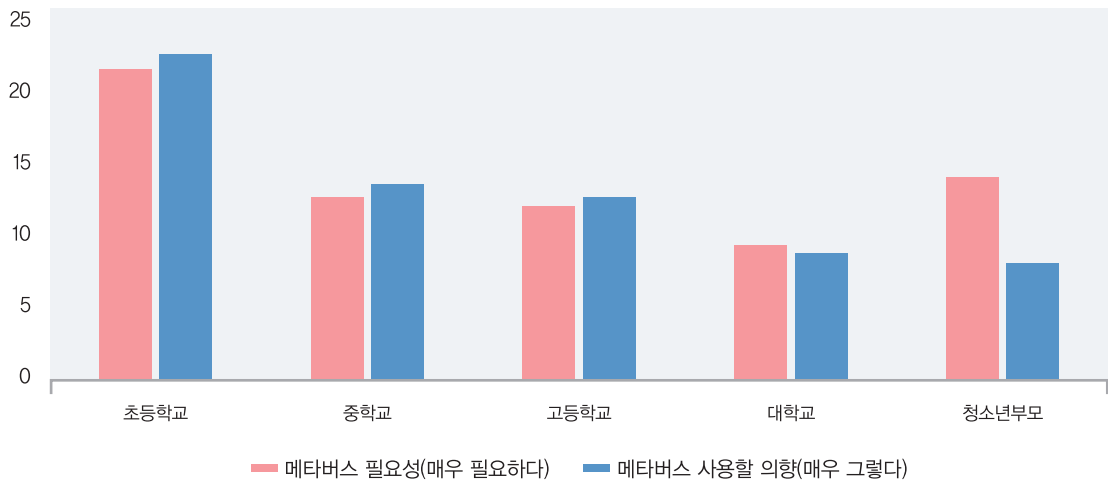
- 면담조사 결과, 가정적 어려움을 청소년들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며, 가족 내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주변으로부터 이상한 가족이라는 편견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집안 일과 형제 돌봄에 어려움을 느끼고, 고등학생은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대학생은 전문 상담진료를 원하며,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준비에, 청소년부모는 서비스 지원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가족 내 고민이 있을 시 대처방법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외부와 단절한다’, ‘스스로 자해한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응답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 대학교, 청소년부모로 갈수록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고등학교와 청소년부모 집단의 50% 이상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를 선택하였고(고등: 54.0%, 청소년부모: 56.0%), 청소년부모가 다른 집단에 비해 ‘스스로 자해한다’가 20.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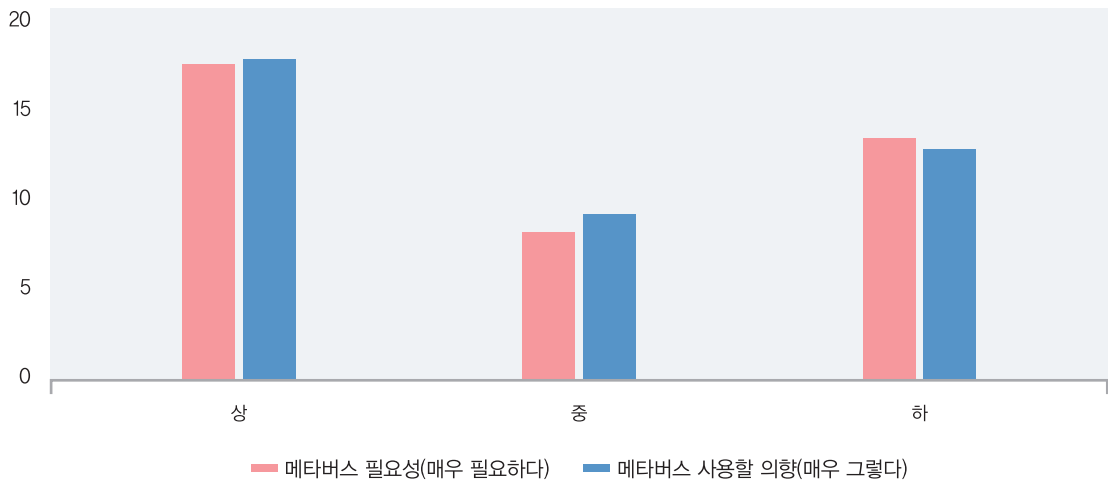
[그림11] 연령별 학교급에 따른 가족문제로 고민될 때 대처방법

• (정책과제6) 24시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서비스 지원방식으로 재편

- 면담조사 결과, 메타버스를 이용한 24시간 청소년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서비스 지원방식으로 ‘메타버스의 필요성과 사용 의향’에 있어서 연령별 학교급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특히 ‘메타버스의 필요성과 사용 의향’에 대해 초등학교급의 경우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은 요구도를 나타낸 반면, 중·고·대학교급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요구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행복도’와 메타버스 선호도 관련해서, 행복도가 높거나 낮을 때 메타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경제수준과 학업수준이 높거나 낮을 때에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 또한 가족지지기반이 높은 집단에서 온라인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과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남.



[그림12] 학교급별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 지원방식의 필요성과 활용 의향



[그림13] 행복도별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 지원방식의 필요성과 활용 의향

